

11대 핵심과제 - 25대 주요과제, 어떻게 진행되나

“자연공원법 개정 반드시 필요”

불교 고유의 종교활동을 침해하는 국가의 각종 규제법령을 개선해 종단과 사찰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010년 성과목표는 △종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법인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의 개정 △국립공원 경계부 사찰 공원구역 제외 △국립공원 제도 전반에 대한 종단과 환경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 △국립공원내 전통사찰 지원 사업 제도화 등이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자연공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이다. 하지만 법의 방향이 자연생태 보존에만 치우쳐 있어 공원구역 내 사찰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불사마저 원칙적으로 제외당하는 형편이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해 문화유산지역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역사문화유산인 공원내 사찰의 관리권을 수호하자는 차원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 요구와 관련 환경부가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새로 설정해 공원구역 내 사찰을 여기에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해오며, 공원문화유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최근 국·팀장 워크숍을 열어 11대 핵심과제와 25대 주요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전체 종무원 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중 단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종무원들의 정진과 분발을 주문했다. 이에 본지는 핵심주요과제의 상반기 성과에 근거한 하반기 계획을 미리 살펴 종도들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마련했다.

◆ 핵심과제 ⑤ 국립공원과 문화재구역임장료 제도 개선

역사문화유산 보호 대안 마련 ‘최선’ 경계부 사찰 공원서 제외...곧 가시화 입장료 문제 해결 ‘실무협의체’ 추진

산지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다.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전통사찰의 불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원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 사찰의 의견을 반드시 물도록 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집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오는 9월 의원발의 형식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10월엔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여서 결과가 기대된다. 국립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사찰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려는 노력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예정이다. 북한산국립공원 화계사의 중심 경내지와 속리산국립공원 범주사 사하촌 일원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국립공원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종단과 환경부간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 사찰팀을 새로 꾸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립공원내 전통사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찰환경개선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종단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역사문화유산 보호의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 최선의 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징수’라는 사찰 측과 ‘통행세에 불과하다’는 등산객 간 마찰을 빚는 문화재구역임장료의 대안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문화재보유사찰회의, 관료사찰주지회의 등 종단 내 의견수렴 절차를 조속히 거쳐 장기적인 종단 대응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재무부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문화재구역임장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별 또는 사찰별로 운영방안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25일 토번 두에 유엔세계식량계획 북한담당관의 예방을 받고 불교계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 모색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FP, 조계종에 ‘대북 식량지원’ 요청

토번 두에 담당관 “농경지 침수로 어려움 커질 것” 총무원장 자승스님 “정부 차원 지원 되도록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토번 두에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북한담당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토번 두에 북한담당관은 이날 예방에서 “WFP는 전쟁이나 내전, 자연재해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현재 북한 내 유일한 유엔기구로서 43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어린이, 임산부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주말 신의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간 종단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부를 통해 대북구호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며 “불교계 차원에서도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모색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사찰환경 보호활동 및 수행환경 보전

주요과제

사찰등급 현실화를 통한 분담금 조정

‘신재생 에너지 연구’ 활발 환경침해 사례 적극 대응

사찰에너지 개선 및 사찰활 용방안 연구 등 사찰환경 보전을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무원 사회부는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1차 연구 사업을 완료하고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사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위기 극복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불교계가 뛰어

든 것이다. 이어 2차 연구진행에 착수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추진 반대 등 환경침해 대응 활동에 적극 나섰다. 이밖에 환경위원회 5기 위원을 새로 위촉해 종단의 환경활동을 강화한 점도 성과다. 교재용 책자인 ‘불교 환경지침서’도 제작 배포했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중앙-교구 총량·평균 분석 ‘형평성 맞게 재조정’ 추진

분담금과 관련한 사찰등급조정 규정은 1981년 제정되고 1995년 개정됐다. 이후 종단과 사찰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단 집행부는 단위사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에 따른 사찰등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찰등급규정 개정을 통해 분담금액을 조정하고,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무부서인 총무원 재무부는 올해 사찰 등급조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사찰등급 조정기준 제도 개선안 확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교구본사 중앙분담금과 교구분담금의 총량과 평균치를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해 분담금 조정계획안의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게 하반기 목표다. 장영섭 기자



현장에서

100년 만에 편히 잠든 일제 희생자들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부디 일본에 의해 희생된 영가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24일 봉행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봉행된 ‘경술국치 100년, 일제희생자 영가 천도제’에 참가한 한 불자의 말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앞두고 열린 천도제는 독립운동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에 의해 희생된 모든 영가들을 위로하기 위해 봉선사와 중앙산도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맞은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올해 여기저기서 100주년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나 사진전 등 많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언론에서도 다양한 특집 기사를 통해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병합조약이 조인된 서울 남산 통감관저 터에 표석을 세우는 문제를 두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식민지배 희생자들을 위한 행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이들이 일본 총칼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들을 기억하거나 위로하는 행사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불교계가 나서 일제희생자를 위한 천도제를 마련한 일이 다행스럽다. 더욱이 기승을 부리는 무덤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봉선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흐트러짐 없이 천도제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불교계 명절인 우란분절을 맞아 열린 일제희생자 영가 천도제가 더욱 뜻 깊게 여겨지는 이유다.

공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에서는 불기 2554(2010)년도 국제포교사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 목적: 국제포교사운영에관한령에 의거하여 국제포교 활동을 위하여 국제포교 인력의 배출 및 활동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함.
■ 고시일시 및 응시장소: 불기2554(2010)년 10월 24일(일) 09:00-14:00
나. 응시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응시자격: 가. 스님 - 조계종 스님(예비승 포함)으로서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포교의 원력을 지닌 자
나. 재가불자 - 조계종 등록 신도로서 외국어에 능통하며 국제포교의 원력을 지닌 자
■ 응시원서 배포 및 접수: 가. 배 포: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다운로드 (www.buddhism.or.kr)
나. 접 수 처: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02) 2011-1891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3층 국제포교사회 T.02-722-2206
나.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전화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0년 9월 27일(월) - 10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형방법: 1)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고사장 안내 (※10월 15일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2) 제2차 필기고사 및 면접 (※10월 24일)
3) 최종합격자 선발 및 발표 (※11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4) 자격 품수

- 시험과목 및 유형: 1) 필기고사 ① 시험과목: 불교교리, 불교사, 불교상식, 불교문화, 한국 불교 일반, 포교이해론, 일반상식 등
② 출제유형: 단답형, 서술형으로 출제됨
③ 출제문항: 총 25문항
④ 시험시간: 80분
2) 면접고사
1 인성, 집행 면접 - 불자로서 의식과 소양, 종단관
- 사찰예절 및 의식집행 능력
- 국제포교사로서 활동의지와 역량
2 외국어 면접 - 발표력(전달력) - 발표 자세
- 용어 구사력(이해도) 측정 - 외국어 능력
3) 응시언어 - 영어에 한함
■ 제출서류: 1) 공 통: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2매, 신상명세서, 최종학 교 졸업증명서
2) 재가자: 신도증 사본,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3) 스님: 승적증명서, 교구본사 주지스님 추천서
4) 응시료: ₩50,000원 (※ 국민은행 023-01-0561-726 계)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기타사항: - 포교원이 시행한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이수자의 경우 가산 점을 부여함
- 응시료 및 제출하신 서류는 일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은 02-2011-1900로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불기2554(2010)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해 총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 제6차 善知識 초청 불교대강좌

고우큰스님 초청 대강좌 『육조혜능 구결口訣 금강경』

과연 육조혜능스님은『금강경』의 무엇을 어떻게 보고 깨쳤을까요? 육조혜능의 깨달음의 안목이 금강경에 대한 육조구결로 설해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고우스님께서 재현하는 선어록 대강좌!

- 시 간: 2010. 9. 8부터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총 10강)
법 사: 고우스님(조계종 대종사, 금보암 주석)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회 비: 200,000원(교재비 포함), 30명 선착순.
공통 주최: 조계종 원우회, 불교인재원

선지식과 함께 하는 중국 선종사찰 성지순례

- 무상, 마조, 원오선사 선적지, 구채구, 낙산대불, 아미산, 황룡
순례 일정: 2진 - 2010.10.15(금) ~ 10.20(수)(5박 6일)
순례 동참금: 1,400,000원(현지가이드 및 기사탑 불포함)
접수 마감: 9월 10일까지(선착순 마감)

불교인재원 문의: 02)735-2428